

인물

“역사성과 공공성, 오래도록 쥐고 갈 건축적 화두”

인터뷰 - 손지훈
대한민국 건축대전 대상 수상자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건축학은 공학의 여타 학문들과는 달리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인상은 비단 그 자체의 의미만을 넘어 지역사회의 풍경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건축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다. 우리학교의 손지훈(건축학 2007) 군은 ‘2014 정림학생건축상’,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등 굵직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건축가로서 나름의 가치관을 세심하게 확립해가고 있다. 손 군을 만나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파 하는 따뜻한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뭔가 ‘예술적인 자아’를 지닌 전문가의 모습을 꿈꾸며 건축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린 시절부터 ‘만드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지식을 단순히 암기해서 습득하는 것보다는 실습을 통해 체득해가는 방식에 좀 더 흥미를 느꼈을 뿐이다. 손 군은, 건축에 대한 거창한 꿈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건축학과를 지원했었다. 하지만 손



군은 문과 출신이었다. 교차지원으로 건축학과 입학엔 성공했지만, 이과적 성격이 짙은 건축학과와 커리큘럼은 손 군의 마음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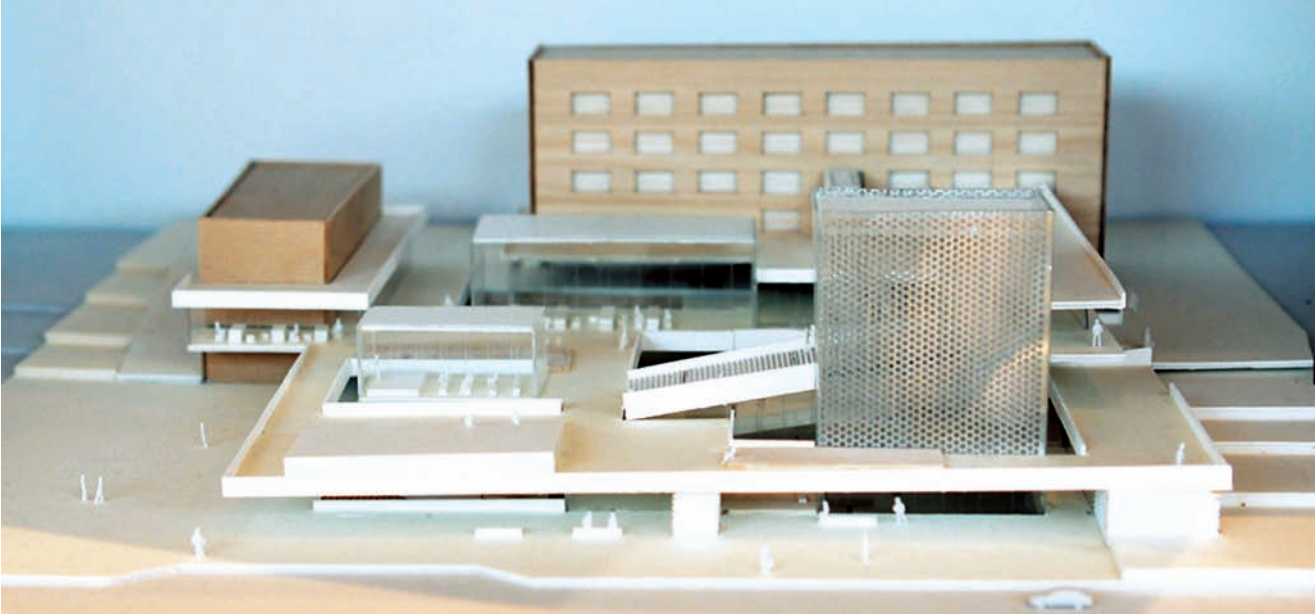
“1·2학년 때는 다른 학생들에게 열등감까지 느꼈지만,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돼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어요.”

정석을 좇아 기초부터 차근차근, 손 군은 이것이 나름의 정공법이라 여기며 성실히 배웠다. 그 덕인지 건축사사무소의 교수님 밑에서 두세 달 동안 건축실무를 맡아볼 무렵이던 3학년 무렵에 손 군은 “실체가 너무 쉬웠고 ‘그냥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정공법’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았다. 손 군의 작품에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실무를 마치고 4학년이 됐을 무렵, 제 학교 프로젝트 작품들에 대해 주위에서 ‘너무 뻘하고 정석대로만 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런 평가 속에서 스스로 제 작품을 돌아보니, 정말 개성이 없어 보였고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까지도 들었죠.”

방황이 시작됐다. ‘나의 색깔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시작됐고, 손 군은 잠시 시간을 갖기 위해 5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입대를 선택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2년의 군 생활은 결과적으로 손 군에게 큰 보탬이 됐다. 2년간, 그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작품이 설명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불친절해서 마치 지식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은 분



손 군이 지향하는 건축적 가치관은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과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기였다’는 자아진단을 내리고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을 다시 거듭했다.

그리고 작년 겨울 전역한 손 군은 자신의 건축적 가치관을 가다듬은 이후, 단독으로 혹은 공동작업으로 여러 대회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는 2014 정림학생건축상 대상(신태섭<건축대 건축학 2008> 공동작업), 제11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대상(문재원<건축학 2008>, 김영미<건축학 2009> 공동작업), 제33회 대한민국 건축대전 국제 일반 공모전 대상(단독작업) 등에서 연달아 작품세계를 인정받으며 지난 고뇌의 시간을 보상받았다.

현재 손 군이 지향하고 있는 건축적 가치관은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 수상작과 대한민국 건축대전 수상작을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국제적인 근대문화유산 보존단체인 도코모모 인터내셔널(Docomomo International)의 한국지부 도코모모 코리아가 주관한 디자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세운상가 리모델링 안’에서, 손 군은 건축물이 지니는 시간성을 ‘시대성과 역사의 보존’이라는 키워드 아래 강조시킨다. 그는 이미 슬럼화가 진행된 공중

보도 등 최소한의 요소들만 조정하고 전체적인 매스에는 크게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세운상가가 스스로 완공 당시의 시대성을 웅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운상가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종종 ‘해

방 이후 최악의 건물’들 중 하나로 뽑히곤 하는 독불장군같은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특성 자체가 곧 세운상가 건설 당시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던 건축물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시점에서 이질적이라는 이유로 선별리 철거해버리면 건물의 시간성은 영원히 사라져버려서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지죠. 그래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미래세대로 유예하고 시간성 자체를 보존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현재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는 재생건축의 사례들이 많은 참고가 됐다고 한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공원조성사업’ 등 오래된 구조물을 철거하는 대신 도시의 역사를 보존하는 방식의 건축적 접근을 세운상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셈이다.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공모전을 통해 ‘건축물의 역사성 보존’을 강조한 손 군은, 대한민국 건축대전의 대상작 ‘학교로 동네 만들기’를 통해 ‘건축물의 공공성 확장’을 시도한다.

그는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이미 도시계획의 중심에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 구역의 확장과 개방을 통해 학교가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의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장시켰다.

이 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인 학교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

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했다.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는 2002년부터 각급 교육청 주도로 진행된 ‘학교 공원화 사업’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당시의 학교 공원화 사업이 단지 답을 허무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출품작을 통해 하드웨어적인 건축물 뿐만 아니라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측면도 제안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수의 외부인이 자유롭게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의 감시효과’를 통해 역으로 범죄 발생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요소가 됐다.

공공건축에 대한 손 군의 이런 건축관은 고(故) 정기용 건축가의 ‘무주 프로젝트’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홀로 의미를 발산하는 공공건축이 아닌, 동네를 향해 열어놓음으로서 동네와 조화가 되고 공공건축물 자체가 동네의 일부가 되는 ‘조화로운 공공건축’의 방향성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다.

건축물의 역사성과 공공성은, 아마도 손 군이 꾸준히 붙들고 나아갈 건축적 화두가 될 것 같다. 그는 커다랗고 거대한, 그래서 흡사 건축가의 이름을 아로새기는 듯한 건축물 보다는 시간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자연스런 건축물을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사람들의 일상을 기억하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 머무는 좋은 풍경 같은 건축물, 그것이 이제 막 건축가로서 세상에 발을 내밀고 있는 손 군이 꿈꾸는 건축이다.

20대,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

강연 전 20분,
학생강연자 Speech가 진행됩니다.

김태원
구글코리아 팀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

WED
2014/11/26
PM 5:00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3F 피스홀

주관 | 경희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경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 | 오간지 프로덕션
오렌지코드

ORANGE CODE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 · 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원부에(학점교류생) 수강신청기간	2014. 12. 03(수)	SMS 안내 문자 발송 ※ 학점교류생에 한함
	2014. 12. 1(목) 10:30 ~ 12. 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배강공고	2014. 12. 15(월) 12:00 (1차) 2014. 12. 19(금)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배강과목 수강생)	2014. 12. 15(월) ~ 12. 17(수) 17시	휴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배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성적열람일	2015. 01. 16(금) 부터	

2. 개설기간 및 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16일간]

나.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5:45				

다. 개설교과목 수업 시간표 조회 :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계시판에 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11. 17(월)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링크 클릭

3. 학점교류(타대학 학생이 본교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가. 추천기간 : 2014. 11. 28(금) 17:00 까지

나. 학원부여 : 2014. 12. 03(수) SMS 개별 문자 발송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12. 1(목) 10:30 ~ 12. 15(월) 17:00

나. 수강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학점교류, 국제교류처를 통한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U) 프로그램과 계절학기 동시 수강 가능

※ 단 수강가능 학점(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배강 공고

1) 1차 : 2014. 12. 15(월) 12:00 (1차)

2) 2차 : 2014. 12. 19(금) 09:00 (2차)

라. 수강신청 방법 : 정규학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동일)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배너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5. 수강등록

가. 등록금 납부기간 : 2014. 12. 16(화) ~ 12. 18(목) 16시

나. 등록방법 :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징학→ 등록매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1) 입력사항 : (학년) 2014학년도, 학기) 겨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조회내용 : 신청과목과 납부 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가상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 인터넷뱅킹/무통장입금

라. 등록금액 : 1학당당 89,000원

마. 유의사항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배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6. 등록 후 수강 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수강포기기간	환불금액	수강포기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2014.12.19(금) 17:00	전액 환불	휴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본인명)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4.12.22(월) ~ 12.29(월) 17:00	수강료 2/3환불	환불신청서 작성(본인명)
수업개시일 1/3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4.12.30(화) ~ 2015.01.02(금) 17:00	수강료 1/2환불	의 통장 사본 동봉)※ 배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함)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유아) 20명 이상

나. 전공 강좌 개설여부는 각 단과대학 결정사항이므로 해당 전공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4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불가함

라. 2014학년도 1학기(포함) 이후 강좌 중 8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을 불가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배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휴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자.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가함

3)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이 충족되어도 복학하기에는 밀히 등록하여야 함

8. 문의처

가. 서울 휴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나. 국제 휴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양주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휴마니타스칼리지